

# 경영가라



**[해제]**

<경영가라>는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 가사작품으로 작자와 제작시기는 물론 필사자와 필사시기모두 미상이다. 줄글체로 필사되어 있으며, 4.4조의 기본율격을 잘 지키고 있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작품 제목이 <경영가라>라 하여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작품의 내용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시집가기 전의 딸에게 시집가서 할 도리를 경계하여 지어주는 가사기 때문에 <경녀가(警女歌)라> 또는 <계녀가(誡女歌)>로 표기해야 할 것을 <경영가라>라 쓴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한다. 앞서 기술한대로 작품은 평소 시집가기 전의 딸을 교훈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딸의 교육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인간의 온갖 행신범절과 여공(女工)을 힘써 배울 것과 부녀들이 경계하여야 할 일반적 악습 등을 조목조목 일렀다. 시가에 가서 시부모 공양하는 법, 침선(針線)과 방적(紡績)의 도리를 설파하였고, 음식범절, 의복지절을 말하고 행동거지를 잘하는 법, 집안 단속하는 법 등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이 작품의 특징은 비교적 조리가 정연하게 서술되었고 내용도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지방에서 유사한 내용의 <경녀가(警女歌)>라는 작품이 수집된 바 있고 영남일대에서는 <교녀가> 라는 이름으로 다수 수집되었다.

**[원문]**

경영가라

허부다 여아야 너을나아 길여닉여  
 십팔식 디신이 나무가문 보닉자니  
 양숙골물 간디업고 인정허비 그지업다  
 부여스정 그러흔들 고법을 면할손양  
 만복의 웃듬니요 오룬이 유뵤니라  
 남조라도 출문허며 영경디번 조심커늘  
 허물며 규중여조 탄문의 보닉조니  
 송문할씩 경기법은 고인도 잇근마는  
 조모음시 크난조식 무순교훈 잇소오리  
 경기일중 디강허니 지송가스 수읍시나  
 너을위허 지어시니 중히알고 잇지마라  
 시부모깃 효성허고 동기간의 우익허고  
 친척간의 화목허고 슬허의 니<sup>ㄴ</sup>허며  
 남스람 슈죽할디 은연은연슈조 잇지말고  
 봉지스 접빈직은 릿절을 좇초허고  
 음식지절 조심허고 의복기며 정결허며  
 가정을 정지허야 쇠소음디 잇지말고  
 빈부가 달나시나 처신범절 다를손양  
 시부모와 금실간 여혹미워 할지라도  
 효성할디 조이나고 공경할디 인조난니  
 궁곤의 낙을숨아 부지를 탕치마라

구고방이 흥정신성 괴롭다 스럼말고  
정구지력 전청역을 직분으로 아라시라  
빅반총탕 정질하면 다슈성찬 부러할가  
헌웃가지 중히알며 식웃시 이우리라  
이웃아기 아나쥬면 그도역신 적선니오  
빈흔스람 올깃알고 무스람 스정말고  
남이첨연 무서워라  
시가익는 말도만타 남이말은 니안다고  
조청을 하지마라 능히아는 이리라도  
니잘한다 하지말고 보고듣는 말리라도  
옴기을 조심히라  
여렴날릭 덩다히도 웃을벗고 나지말고  
이웃스람 조타히도 조쥬니왕 하지마라  
천홀슈로 공경하고 올을슈록 조심히라  
아모릭 친흔스람 못할말을 하지마라  
네가가서 조현소문 이니귀의 들이오면  
숨식지용 당할손양 이지중지 너싱각이  
쥬야로 변할손가  
달아달아 발근달아 우리조식 비취여라  
손아손아 놉흔손아 저손너의 잇시리라  
봉닉산 씨난구름 할무 회포로다  
비죄천슈 허른무른 위여의 싱각이라  
용명안 나라가니 기력기난 보아쓰가  
미런흔 저암소도 식기씨고 우렴운다  
숨월리라 숨저일의 연조펼펼 초조와서  
식기쳐서 나라가닉  
익문하고 익인정은 예스람과 일반이라  
김싱도 절을진딧 하물며 스람이야  
우리아히 아니오니 천키나 지닌난가  
일석의 유양드른 집을초조 오근마는  
천중가절 단오일의 너동뮤 다모헛다  
화초의 봄비던니 너이보든 송각니라  
유월치월 숨할씨며 절단코 별석본니  
너싱각 식로난다  
척죄고단 흘노서서 바힌마음 얼들손양  
헛부다 니이심스 너엇지 옛식인고  
식승무심 유슈디고 인스공연 빅발이라  
지니보닌 초중이력 일중춘몽 간딧읍고

이휴실허 조손영화 미리진정 미더쓰가  
기가고락 어려워라 신신무탁 경기허니  
너듯고 횡허여라  
시부모가 스랑하면 위럼이 업나니라  
스랑타고 조심말면 눈이나기 식우리라  
구고스랑 안니허도 효성을 축실히라  
공경을 드욱히라 금실니 환할슈록  
정을밋고 능히알면 잇스븐정분 머리지니  
남조치중 줄못하면 음식이 좀겨들고  
이복이 돌출치면 여조의 망골니요  
남조의 우익이라 남조치중 잘못허며  
안진부녀 심식이라 현이복을 줄만치면  
손손트로 복니되고 저근음식 줄노르면  
말니촌석 단중이라 옷가라 입을저이  
미리허여 두어다가 집안이 군속촌이  
남니허여 가져온닷 립시지도 틀리존니  
압뒤가 틀이존니 다 조심허여라  
금실조익 여가나고 먼디복니 짜라온다  
남이첨연 여기있다 군조호 감닉허고  
군조이복 준비허고 유렴허고 조심허면  
실리가 읍나니라  
부모식옷 잇다허고 전히밋고 노지마라  
비덜니여 이통시고 전닷좌바 옷잇부먼  
불조도 결인치고 귀인도 처인니라  
잇지경의 이른스람 후회흔들 실씩잇나  
운슈만 밋지마라  
근금흔디 복이날고 절봉흔디 존물보닉  
기푼물의 여롱누고 기손니 별니드다  
먹고입는 스람디야 전후를 모를손양  
조심허고 아라히라 니왕먹고 날송흔디  
잇서도 징기읍서 익글진디 엇다고 원망말고  
잇다고 교티마라 술취흔디 지치말고  
악한스람 경기허야 축흔도를 인도허고  
축흔스라 디허거든 쏜을바다 횡허여라  
국나의 스양승허고 가빈의 스현처을  
녀조덕욱 알것이라  
문박기 퍽만석을 담조안만 버러던들 너무헛깃  
유용남석 허기디면 천만스가 헛스로드

만히도 본갑존코 적그도 쯤미느기  
중중의 달여시니 잇가거슬 유렴하고  
휴일을 싱각히라  
직슈지절 줄못하면 두옥도 성경일식  
치스부녀 즉척일식 반각의 광척일식  
접비하기 시련하며 가정 중반하며  
히가망신 흥남이라  
량심을 노치말 총효을 잊지마라  
부모의 불효하면 조손효도 밧덜손양  
쳐신범절 어려움 조심하며 실슈읍다  
아모리 시중히도 어른먼저 먹지말고  
아모리 급하여도 안저서 인스말고  
어른먼저 안저마라  
이우 스람니느 식부모느 웃시그든  
이러느서 헌신하고 언어수족 횡동거지  
민첩하기 어려우나 지시알라 조심하고  
훈정신정 효심으로 구고방의 들어가서  
치우신가 드우신가 인스를 엿주어라  
식부모가 굿종크든 화안순식 우서어러  
닉아모리 올트라도 올타고 발명마라  
발명니 디답니라  
식부모가 잘못히도 줄못한다 흥지마라  
아모리 우서우느 난분시디 웃지말고  
조식니 지타히도 속짐족만 지타고  
농보기 지키마라  
미운닐리 잇시느마 어른압히 치지마라  
총졸간 실슈마라 가득헌디 넘칠시라  
축훈중의 글을시라  
녀자소리 담너무며 픽가망신 흥기쉽다  
금실중의 축훈보다 귀경을 조아하면  
실치가 수우리라  
놉픈손 화석압픽 긴들엇지 쑤절손양  
이웃말을 일숨어면 몸돌고지 업느이라  
몸호스를 다흥조면 조손갓치 못스느이  
남느되로 절용하고 읍느기술 준비하라  
그럭저럭 시월만히 거문머리 푹발되고  
고디광실 놉흔집의 푹연히로 늘그진니  
조손만당 부귀공명 만만시로 유전하니

스시공왕 하기로다 뉘가아니 칭춘허리  
어화식송 스람더라 잉간여화 흥논법니  
처지익도 잇근이와 인심익도 잇논니라  
적선가의 여경잇고 후득인의 복니만타  
아라할일 만흥도다 그안니 죠심할가  
명심불망 니경기들 다너가 조시 흥흥여라

[현대역]

경영가라

허뿌다1) 여아(女兒)야 너를 낳아 길러내어  
 심팔세 되시니 남의 가문(家門) 보내자니  
 양숙 골물(汨沒)2) 간 데없고 인정협의 그지없다  
 부녀(婦女)사정 그러한들 고법(古法)3)을 면할쏘나  
 만복(萬福)에 으뜸이요 오륜(五倫)4)에 유법(遺法)5)이라  
 남자라도 출문(出門)6)하며 영경대번 조심커늘  
 하물며 규중(閨中)7) 여자 타문(他門)8)에 보내자니  
 송문할 때 경계법(警戒法)은 고인(故人)도 있건마는  
 자모(慈母)9)없이 크는 자식 무슨 교훈(教訓) 있으오리  
 경계(警戒)10) 일장(一章) 대강하니 지상가사 수 없으나  
 너를 위해 지었으니 중히 알고 잊지마라  
 시부모께 효성(孝誠)하고 동기간(同氣間)에 우애(友愛)하고  
 친척(親戚)간에 화목(和睦)하고 슬하(膝下)11)에 니 $\infty$ 하며  
 남사람 수작(酬酌)12)할 때 은연은연13) 수작(酬酌) 잊지 말고  
 봉제사(奉祭祀)14) 접빈객(接賓客)15)은 예절(禮節)을 쫓아하고  
 음식지절(飲食之節)16) 조심하고 의복(衣服)이며 정결(淨潔)하며  
 가정(家庭)을 정제(整齊)17)하여 쇄소응대(灑掃應對)18) 잊지 말고  
 빈부(貧富)가 달랐으나 처신(處身)19) 범절(凡節)20) 다를쏘나  
 시부모와 금슬(琴瑟)21)간 여혹(如或)22) 미워할지라도  
 효성(孝誠)할 때 자애(慈愛)23)나고 공경(恭敬)할 때 인자(仁慈)24)나니  
 궁곤(窮困)25)에 낙을 삼아 부지를 당치마라26)  
 구고(舅姑)27)방에 혼정신성(昏定晨省)28) 괴롭다 사념(邪念)29)말고  
 정구지역(井臼之役)30) 전청역을 직분(職分)31)으로 알아서라  
 백반총탕(白飯葱湯)32) 정제(精製)33)하면 다수(多數)성찬(盛饌)34) 부러할까  
 헛 옷가지 중히 알면 새옷이 이우리라  
 이웃 아기 안아주면 그도 역시 적선(積善)35)이오  
 빈한 사람 옳게 알고 못 사람 사정(事情)36)말고  
 남의 첨언(添言)37) 무서워라  
 시가(媿家)38)에는 말도 많다 남의 말은 내 안다고  
 자청(自請)39)을 하지마라 능히 아는 일이라도  
 내 잘한다 하지 말고 보고 듣는 말이라도  
 옳김을 조심해라  
 여름날에 덤다 해도 옷을 벗고 나지 말고  
 이웃사람 좋다 해도 자주 내왕(來往) 하지마라  
 친할수록 공경(恭敬)하고 옳을수록 조심해라

아무리 친한 사람 못할 말을 하지마라  
네가 가서 좋은 소문 이내 귀에 들어오면  
삼세지용 당할쏘냐 애지중지(愛之重之)40) 너 생각이  
주야(晝夜)로 변할쏘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자식 비추어라  
산아 산아 높은 산아 저 산 너에 있으리라  
봉래산(蓬萊山)41) 떠난 구름 할무42) 회포(懷抱)43)로다  
비재천수 흐른 물은 위녀의 생각이라  
용명안 날아가니 기러기는 보았던가  
미련한 저 암소도 새끼 떼고 울음 운다  
삼월이라 삼지일(三之日)44)에 연자(燕子)45) 펄펄 찾아와서  
새끼쳐서 날아가네  
애운하고 애인46) 정은 옛사람과 일반이라  
짐승도 저럴진대 하물며 사람이야  
우리 아이 아니오니 천키나 지내난가  
일석(一夕)47)에 유양들은 집을 찾아 오건마는  
천중가절(天中佳節)48) 단오일(端午日)에 네 동무 다 모였다  
화초(花草)에 봄비더니 너의 보던 생각이라  
유월 칠월 삼하(三夏)49) 때며 결단(決斷)코50) 별석(別席)51)보니  
네 생각 새로 난다  
척조고당 홀로 서서 바랜 마음 얻을쏘냐  
허뿌다 내 이 심사 너 어찌 여식(女息)52)인고  
세상무심 유수(流水)53)되고 인사(人事)54) 공연(空然)55) 백발(白髮)이라  
지내 보낸 초중(初中) 이력(履歷) 일장춘몽(一場春夢)56) 간 데없고  
이후 슬하(膝下)57) 자손(子孫) 영화(榮華)58) 미리 진정 믿었던가  
기가(起家)59)고락(苦樂)60) 어려워라 신신부탁(申申付託)61) 경계(警戒)하니  
너 듣고 행하여라  
시부모가 사랑하면 위험이 없느니라  
사랑타고 조심말면 눈에 나기 쉬우리라  
구고(舅姑)사랑 아니해도 효성(孝誠)을 착실해라  
공경(恭敬)을 더욱 해라 금슬(琴瑟)이 환할수록  
정을 믿고 능히 알면 있던 정분(情分)62) 멀어지네  
남자 치장(治粧)63) 잘못하면 음식에 잠겨들고  
의복(衣服)에 돌잘치면 여자의 망골(亡骨)64)이요  
남자의 우애(愚駭)65)이라 남자 치장(治粧) 잘못하며  
얇은 부녀 생색이라 현 의복(衣服)을 잘 만지면  
손끝으로 복이 되고 적은 음식 잘 나누면  
만리 초석 단장이라 옷 갈아 입을 적에



미리하여 두었다가 집안이 군속(軍束)66)차니  
남이 하여 가져온다 맏시67) 제도(製圖)68) 틀리잖니  
앞뒤가 틀리잖니 다 조심하여라  
금슬(琴瑟) 재미69) 여기 나고 먼 데 복이 따라온다  
남의 첨언(添言) 여기 있다 군자호 감내(堪耐)하고  
군자(君子) 의복(衣服) 준비하고 유념(留念)70)하고 조심하면  
실리(失利)71)가 없나니라  
부모 새 옷 있다하고 전히 믿고 놀지마라  
빛을 내어 이통시고 전답(田畝)72) 잡아 옷 입으면  
부자(富者)도 걸인(乞人)되고 귀인(貴人)도 천인(賤人)니라  
이 지경에 이른 사람 후회한 들 쓸 데있나  
운수(運數)73)만 믿지마라  
근검(勤儉)74)한 데 복이 날고 절용(節用)75)한 데 잔물 보네  
깊은 물에 여룡(驪龍)76)나고 기산에 별이 드다  
먹고 입는 사람되어 전후(前後)를 모를쏘나  
조심하고 알아해라 내왕먹고 날 상한데  
있어도 징계(懲戒)없어 액을진데 없다고 원망(怨望) 말고  
있다고 교태(驕態)77)마라 술 취한 데 저치78)말고  
악한 사람 경계(警戒)하여 착한 도를 인도(引導)하고  
착한 사람 대하거든 본을 받아 행하여라  
국난(國亂)에 사양상(思良相)79) 하고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80)를  
여자 더욱 알 것이라  
문밖에 백만석을 담장안만 벌였던들 너무 헛것  
유용(流用)81) 남식(濫食)82) 하게 되면 천만사(千萬事)83)가 허사(虛事)84)로다  
많아도 반갑잖고 적어도 재미나기  
중장에 달렸으니 온갖 것을 유념(留念)하고  
후일을 생각해라  
재수지절 잘못하면 두욕도 성경일세  
치산(治産)85) 부녀 직책(職責)86)일세 빈객(賓客)87)에 광채일세  
접빈(接賔)88)하기 싫어하면 가정 중빈(中貧)89)하며  
패가망신(敗家亡身)90) 하나니라  
양심을 놓지말고 충효(忠孝)를 잊지마라  
부모에 불효(不孝)하면 자손 효도(孝道) 받을쏘나  
처신(處身)91) 범절(凡節)92) 어려움 조심하면 실수없다  
아무리 시장해도 어른 먼저 먹지말고  
아무리 급하여도 앉아서 인사말고  
어른 먼저 앉지마라  
이웃 사람이나 시부모나 오시거든

일어나서 헌신(獻身)93)하고 언어(言語) 수작(酬酌)94) 행동거지(行動舉止)95)  
민첩(敏捷)96)하기 어려우나 자세 알아 조심하고  
혼정신성(昏定晨省)97) 효심(孝心)으로 구고(舅姑)방에 들어가서  
추우신가 더우신가 인사를 여쭙어라  
시부모가 꾸중커든 화안(和顏)98)순색(純色) 웃어서  
네 아무리 옳더라도 옳다고 발명(發明)99)마라  
발명(發明)이 대답이라  
시부모가 잘못해도 잘못한다 하지마라  
아무리 우스우나 난분시되 웃지말고  
자식이 귀타해도 속짐작만 귀하고  
남보기 직해(直解)100)마라  
미운 일이 있으나마 어른 앞에 치지마라  
창졸간(倉卒間)101) 실수마라 가득한데 넘칠세라  
착한 중에 그를세라  
여자소리 담 넘으면 패가망신(敗家亡身)102) 하기 쉽다  
금슬(琴瑟)중에 착함보다 구경을 좋아하면  
실체(失體)103)가 쉬우리라  
높은 손 화석 앞에 그인들 어찌 꾸짖을소나  
이웃 말을 일삼으면 몸돌 곳이 없느니라  
몸 호사(豪奢)104)를 다하자면 자손(子孫)같이 못 사나니  
남는 대로 절용(節用)105)하고 없는 기술 준비하라  
그럭저럭 세월 많아 검은 머리 백발되고  
고대광실(高臺廣室)106) 높은 집에 백년해로(百年偕老)107) 늙어지니  
자손만당(子孫滿堂)108) 부귀공명(富貴功名)109) 만만세(萬萬歲)110)로 유전(遺傳)하니  
사시 공맹(孔孟) 화기(和氣)111)로다 뉘가 아니 칭찬(稱讚)하리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인간(人間) 영화(榮華) 하는 법이  
처지(處地)에도 있거니와 인심(人心)에도 있느니라  
적선가(積善家)에 여경(餘慶)있고112) 후득인에 복이 많다  
알아 할 일 많도다 그 아니 조심할까  
명심불망(銘心不忘)113) 이 경계(警戒)들 다 넣어가 자시114) 행하여라

[각주]

- 1) 허뿌다 : ‘허(虛-)하다’의 경상남도 방언. 허전하다는 뜻.
- 2) 골몰(汨沒) :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
- 3) 고법(古法) : 옛날부터 전해 오는 법이나 법칙.
- 4) 오륜(五倫) :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을 이룸.
- 5) 유법(遺法) : 옛사람이 남긴 법.
- 6) 출문(出門) : 문밖으로 나감. 집을 떠남.
- 7) 규중(閨中)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8) 타문(他門) : 자신이 속하지 않은 문중(門中)이나 집안.
- 9) 자모(慈母) :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뜻으로 ‘어머니’를 이르는 말.
- 10) 경계(警戒) :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
- 11) 슬하(膝下) :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룸.
- 12) 수작(酬酌) : 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
- 13) 은연은연 : 은은하게. 소리가 아득하여 들릴 듯 말 듯 함.
- 14) 봉제사(奉祭祀) : 봉사(奉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5) 접빈객(接賓客) : 접객(接客). 손님을 접대함.
- 16) 음식지절(飲食之節) : 소학(小學) 경신(敬身)편에 있는 장(章)으로 음식을 먹고 마실 때의 예절.
- 17) 정제(整齊) :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
- 18) 쇄소응대(灑掃應對) : 물을 뿌려 쓸고 응대한다는 뜻으로,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웃어른의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상대함을 이르는 말.
- 19) 처신(處身) :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 20) 범절(凡節) :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 21) 금슬(琴瑟) :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부부간의 사랑.
- 22) 여혹(如或) : 만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 23) 자애(慈愛) :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
- 24) 인자(仁慈) :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 또는 그 마음.
- 25) 궁곤(窮困) : 생활이 궁하고 어려움.
- 26) 탕치마라 : 재산을 다 없애지 말라는 뜻.
- 27) 구고(舅姑) : 시부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8) 혼정신성(昏定晨省)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 29) 사념(邪念) : 올바르지 못한 그릇된 생각.
- 30) 정구지역(井臼之役) : 물을 길고 절구질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살림살이의 수고로움을 이르는 말.
- 31) 직분(職分) :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 32) 백반총탕(白飯葱湯) : 흰밥과 파로 끓인 국이라는 뜻으로, 반찬이 없는 겸소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3) 정제(精製) : 정성을 들여 정밀하게 잘 만듦.
- 34) 성찬(盛饌) : 풍성하게 잘 차린 음식.
- 35) 적선(積善) : 착한 일을 많이 함.
- 36) 사정(事情) :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
- 37) 첨언(添言) : 덧붙여 말함.
- 38) 시가(媿家) : 시집. 시부모가 사는 집.
- 39) 자청(自請) :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함.
- 40) 애지중지(愛之重之) :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 41) 봉래산(蓬萊山) :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영산(靈山)인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 동쪽 바다의 가운데에 있으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42) 할무 : 할 말 없다는 뜻. 할에다가 없을무.
- 43) 회포(懷抱) :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
- 44) 삼지일(三之日) : 초사흘.
- 45) 연자(燕子) : 제비.
- 46) 애인 : ‘애이다’의 어근으로 ‘애이다’는 ‘빼앗기다’의 오기(誤記).
- 47) 일석(一夕) : 하루 저녁.
- 48) 천중가절(天中佳節) : 좋은 명절이라는 뜻으로, ‘단오’를 달리 이르는 말.
- 49) 삼하(三夏) : 여름의 석 달.
- 50) 결단(決斷)코 : 마음먹은 대로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 51) 별석(別席) : 특별히 잘 마련하여 베푼 자리. 따로 베푼 자리.
- 52) 여식(女息) : 딸. 여자로 태어난 자식.
- 53) 유수(流水) : 흐르는 물.
- 54) 인사(人事) : 사람의 일. 또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 55) 공연(空然) :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이.
- 56) 일장춘몽(一場春夢) :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7) 슬하(膝下) :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룸.
- 58) 영화(榮華) :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 59) 기가(起家) : 기울어져 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킴. 벼슬자리에 천거되어 입신출세함.
- 60) 고락(苦樂) : 괴로움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61) 신신부탁(申申付託) :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부탁.
- 62) 정분(情分) : 사귀어서 정이 든 정도. 또는 사귀어서 든 정.
- 63) 치장(治粧) : 잘 매만져 곱게 꾸밈.
- 64) 망골(亡骨) : 언행이 매우 난폭하거나 주책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65) 우애(愚駭) : 매우 못나고 어리석음.
- 66) 군속(窘束) : 묶여 있는 것처럼 움짱달싹할 수 없게 어려움.

- 67) 맵시 :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 68) 제도(製圖) : 기계, 건축물, 공작물 따위의 도면이나 도안을 그림.
- 69) 재미 :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 70) 유념(留念) :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함.
- 71) 실리(失利) : 손해를 봄.
- 72) 전답(田畓) :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 73) 운수(運數) :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天運)과 기수(氣數).
- 74) 근검(勤儉) : 부지런하고 검소함.
- 75) 절용(節用) : 아껴 씀.
- 76) 여룡(驪龍) : 흑룡(黑龍)(검은 빛갈의 용).
- 77) 교태(驕態) : 교만한 태도.
- 78) 저치 : 저치다의 어근. 거리끼거나 얽매이다 라는 뜻.
- 79) 국난(國亂)에 사양상(思良相) : 나라가 혼란하면 훌륭한 재상을 그리게 됨.
- 80)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 : 집안이 가난해지면 살림을 잘하는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됨. 비상시에 진가(眞價)를 안다는 말.
- 81) 유용(流用) :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 82) 남식(濫食) : 가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마구 먹음.
- 83) 천만사(千萬事) : 아주 많은 일.
- 84) 허사(虛事) : 헛일. 보람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이 한 노력.
- 85) 치산(治産) :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림.
- 86) 직책(職責) : 직무상의 책임.
- 87) 빈객(賓客) : 귀한 손님.
- 88) 접빈(接賓) : 접객(손님을 접대함).
- 89) 중빈(中貧) : 중간에 가난하게 됨.
- 90) 패가망신(敗家亡身) :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 91) 처신(處身) :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 92) 범절(凡節) :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 93) 헌신(獻身) :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 94) 수작(酬酌) : 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
- 95) 행동거지(行動舉止) :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
- 96) 민첩(敏捷) : 재빠름.
- 97) 혼정신성(昏定晨省)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 98) 화안(和顔) : 부드럽고 온화하여 기쁜 빛이 도는 얼굴.
- 99) 발명(發明) :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또는 그런 말.
- 100) 직해(直解) : 문장이나 구절을 글자 뜻 그대로 해석함.
- 101) 창졸간(倉卒間) : 미처 어찌할 수 없이 매우 급작스러운 사이.
- 102) 패가망신(敗家亡身) :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 103) 실체(失體) : 체면이나 면목을 잃음.
- 104) 호사(豪奢) :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런 사치.
- 105) 절용(節用) : 아껴 씀.
- 106) 고대광실(高臺廣室) : 매우 크고 좋은 집.
- 107) 백년해로(百年偕老) :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
- 108) 자손만당(子孫滿堂) : 자손이 집에 가득함.
- 109) 부귀공명(富貴功名)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110) 만만세(萬萬歲) : ‘만세’(萬歲)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111) 화기(和氣) : 따스하고 화창한 기온. 온화한 기색. 또는 화목한 분위기.
- 112) 적선가(積善家)에 여경(餘慶)있고 : 적선여경(積善餘慶). 착한 일을 많이 한 결과로 경사스럽고 복된 일이 자손에게까지 미침. <주역>의 <문언전(文言傳)>에 나오는 말.
- 113) 명심불망(銘心不忘) :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 오래오래 잊지 아니함.
- 114) 자시 : ‘자세히(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히)’의 경상남도 방언.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